

나는 아침 7시에 빨리 일어났다.

그래서 한 두 세시간을 집에서 비몽사몽하다가 고30기 때문에 학교 여자친구 왔다.

죽었다 나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여자친구 갔다.

나는 갈 때 점심에 먹을 김치볶음밥을 가지고 갔는데 점심시간 12시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나 혼자 먹을수가 없어서 운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늦게 있어서 늦은 것 같다고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 혼자 9시 정도부터 12시 까지 있는데 너무 졸려서 잠만 잤다.

그리고 나서 운수를 기다리며 공부할 시작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팠다.

그런데 학교 화장실은 더럽고 불편하고 냄새도 심하기 나니 그냥 참으려고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냥 많은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갈 때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운 영등이가 자전거에 너무 붙어서 아팠다.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책들을 가지고 갔지만 역시 집에 게비가 공부를 안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날 나는 '아빠 어디가'와 '전남연' 가리 보고 공부를 시작 했다.

그런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쉬면서 놀면서 하다가 그냥 잤다. 끝 ~